

## 중국의 동아시아담론: ‘포아론(包亞論)’적 사유의 전개\*

고 성빈 |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변부의 시각에서 비평해 보면 중국의 동아시아주의는 아직은 정서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이론적 수준으로 체계화되지 않았다. 근대 이래로 중국인의 문화적, 지적인 심리구조에 내면화된 동아시아관을 “포아론”적 지향이라고 정의 내리려 한다. 중국은 아직도 동아시아의 존재인식이 미국/일본/서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의 수단적 의미에 머물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중국의 동아시아”라는 기본적인 사고에서 “아시아대표의식”과 “중아일 체의식”을 내면화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인식들은 “포아론”의 함의에 모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중국의 동아시아사고는 동아시아 주변부에 대한 수평주의적 지향을 회피하면서 위계적인 관계성을 내재화하는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위계적의식이 생성된 배경은 중국의 타자는 유일하게 서구이며 중국만이 서구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대표적인 존재라는 “중국 대 서구의 이원적 세계관”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세계관에서 중국은 아시아 그 자체이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하위에 있는 작은 단위일 따름이다. 반면에 서구에 대해서는 항상 중국이 배워야 하는 모범으로서 혹은 대처하면서 극복해야 하는 적으로서 주목하고 있다. 범아시아주의의 등장 이래로 중국에서의 동아시아사고의 발전적 전개는 내전과 세계대전으로 휴지기를 맞이하였다. 이어서 냉전시대의 이념적 대처상태로 인해서 동아시아지역의 공통적인 주제-동아시아의 근대사문제에 대한 지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정체되었다. 탈냉전은 이러한 정체상황을 토론이 가능한 상황으로 변화시켰다. 근래에는 비판적 지식인의 동아시아담론이 발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제어: 동아시아담론, 포아론(包亞論), 수평주의, 위계의식, 중국 대 서구의 이원적 세계관, 동아시아의 원리

\* 이 논문은 2008년도 제주대학교 교내 일반연구 지원에 의한 결과물이며, 현대중국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북경, 2008년 10월)에서 발표한 것을 보완한 것이다.

## 1. 서론

중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sup>1</sup> 가장 큰 이유는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존재인식이 한국과 일본처럼 증차대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서세동점의 시대에 서구와 일본의 침략에 저항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점차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탈냉전 시대에는 지식계에서 미국과 서구 주도의 문화와 지식, 전지구적 자본주의 국가발전방식을 추종하는 성향에 대한 성찰이 일면서 동아시아담론이 전개되고 있다. 정치영역에서는 미국주도의 세계화와 패권주의에 대한 견제, 일본과의 경쟁의식 등이 동아시아지역주의를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변부의 시각에서 비평해 보면 중국의 동아시아주의는 아직은 정서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이론적 수준으로 체계화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같은 새로운 측면을 조명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첫째, 근대 이래로 중국인의 문화적, 지적인 심리구조에 내면화된 동아시아관을 “포아론(包亞論)”(an embracing Asia perspective)적 지향이라고 정의 내리려 한다. 중국은 아직도 동아시아의 존재인식이 미국/일본/서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의 수단적 의미에 머물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체적이고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 동아시아연대주의의 선구자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동아시아가 연대하여 서구에 대항하는 자신의 주장에 제대로 부응할 능력과 의지가 결여된 동아시아의 후진성에 대한 실망감에서 동아시아를 탈피하여 서구로 진입하자는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제창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지금도 일본의 지식체계와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의 일원으로서의 중국”이라는 관념이 희박하

---

1. 중국의 동아시아담론 이론가인 쑤꺼(孫歌)(2003a: 32)는 일본, 아시아, 동아시아 연구가 중국본토에서는 성과가 미약하다고 솔회한다.

지만 일본의 탈아입구론이 표방하는 것처럼 동아시아를 탈피하여 사유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와의 분리 상태를 사고한 적이 없다. 동아시아에 대한 존재인식이 미약하면서도 정작 일본과는 달리 동아시아를 탈피하려고 해도 갈 곳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적, 문화적, 정치적 전통상 중국은 “중국의 동아시아”라는 기본적인 사고에서 “아시아대표의식(亞細亞代表意識)”과 “중아일체의식(中亞一體意識)”으로 세분화된 인식을 내면화 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인식들이 “포아론”의 함의에 모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여긴다.

둘째, 근대 이래로 서구를 대면하기 위해 동아시아 주변부를 자국의 중심원에 포용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포아론적 지향에는 중국이 동아시아 주변부를 평등하고 주체적인 존재로서가 아닌 모호하게 의식하거나 경시하고 있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동아시아인식은 주변부 동아시아담론의 수평주의(horizontal perspective)적 지향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회피하면서 중국과 동아시아의 수직적(vertical) 혹은 위계적인 관계성(hierarchical interrelationship)을 내재화하는 특성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견해를 기초로 우리는 중국 동아시아사고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을 그려 볼 수 있다. 그것은 중심부인 일본과 주변부인 한국의 담론은 동아시아의 일부본인 자국에서 동아시아를 바라보려는 “원심적 시선(centrifugal eye)”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동아시아를 자신의 내부로 끌어안고 바라보려는 “구심적 시선(centripetal eye)”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탈아론적인 사고와 의미는 반대지만 그 논리전개방식은 유사하다. 탈아입구론은 동아시아를 탈피하여 서구를 지향하는 것이지만 탈아입구의 사고가 불가능한 중국은 동아시아를 자국 중심의 동심원 안에 포용하면서 자신을 지향하려고 한다. 이것이 “포아론”적 지향이며, 단순히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사고보다도 중국의 문화적, 지적인 심리구조에 근원적으로 내면화 된 의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라고 비판만 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중국인이 동아시아를 바라 볼 때 부정적, 긍정적 의미와 동기를 다 포함하고 있으며 시기와 상황에 따라 표현되는 방법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와 변화도 있을 수 있다. 단지 본 연구에서는 주변부의 시

각에서 이러한 중국의 동아시아사조에 대해 비평적인 분석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20세기 초반, “범아시아주의(凡亞細亞主義)”에 스며 있는 정서는 중국이 곧 아시아라는 “중아일체 의식”과 동시에 중국이 아시아를 대표한다는 “아시아대표의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근저에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동아시아의 존재인식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시의 범아시아주의는 주변부로서의 동아시아와 중국과의 상관성에서 “수평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 내용에서도 주변국들을 형식적으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친 것에 불과하다. 이는 동아시아와 단절하여 제국주의에 대항하지는 논리를 펴면서도 중국과 동아시아 주변부의 구체적인 협조방식에 대한 제안이 없으며 단지 중국이 곧 아시아이며 또한 대표로서 아시아는 단절해야 한다는 피상적인 언급만 되풀이하고 있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사회주의적 무정부주의자였던 류스페이(劉師培)의 아시아사조에는 21세기 동아시아담론이 주창하는 탈국민국가주의, 중심부와 주변부 지식인-시민연대에 의한 강대국주의에 대한 저항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오늘날의 담론에서 탈국민국가주의 사유는 무정부주의 논리와는 거리가 있으나, 그의 아시아주의에는 최근의 동아시아담론에서도 참조할 수 있는 진보적인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류스페이 이래로 중국의 아시아담론에서 그의 진보적이면서 수평주의적 아시아사조가 계승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sup>2</sup>

21세기 경계에 나온 중국의 동아시아담론에서도 아직은 중국과 동아시아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데까지는 진전이 안 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의 범아시아주의가 내포하는 아시아를 대표하거나 그 자체라고 하는 사고와는 달리 수평주의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다른 면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중국이 동아시아를 포용하려는 지향도 20세기 초와 같이 전통적 타성에서가 아닌 좀 더 구체적인 이유와 방법을

2. 당시 내외외환을 겪는 상황에서 류스페이를 비롯한 중국의 무정부주의자들은 정치적 전변을 많이 겪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류스페이의 아시아사조에 나타난 강대국에 대한 저항적 요소를 그의 정치적 전변과 분리시켜 논하고자 한다. 중국 무정부주의자들의 사상과 논쟁에 대해서는 蔣俊 外(1990); 吳楓(1991: 348-351).

제시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즉, 동아시아 국가들을 주체적이면서 대등한 상대로 인식하기는 힘들지만 탈냉전시대에 점차로 성장하는 그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를 중국이 포용하여 미국/서구/일본과 대면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조가 강조되고 있고, 지식계에서는 동아시아담론을 통하여 지역연대와 공동체구상 등의 주제들이 토론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빈번히 언급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수평주의”적 사고의 함의는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국제정치무대에서 지역 국가 간 힘의 불균형 상태를 무시한 기계적 평등상태를 추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동아시아담론에서의 수평주의는 중심국, 주변국을 망라하여 국가 간의 차별성-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인 측면-을 인정하되 상호인식과 관계에서 그 차별성을 위계화하거나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상호차별성을 위계성의 근거로 삼지 않고 다원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중심부의 주변부에 대한 동아시아내부의 오리엔탈리즘적 사고와 주변부의 중심부에 대한 옥시덴탈리즘적 사고 모두를 초탈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사고에서는 근대의 국민국가주의와 대국주의를 탈피한다는 의미까지도 중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즉, 수평주의적 사고는 중국이 동아시아를 중화체제의 부분으로서도 아니며 또한 자신이 중심에 위치한 동심원 주변에 존재하는 부분이 아닌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다. 수평주의의 부재에 대해서는 위계적 동아시아인식으로서 탈아론적 사고를 표방하는 또 다른 지역중심인 일본에도 적용이 된다. 이 같은 탈중심주의사고를 더 확장시켜 생각해 보면 세계중심인 미국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대한 위계주의를 벗어나 서유럽을 대하듯 수평주의를 배양하여야 한다.

유추하면, 중국의 포아론적 사고는 아시아를 수평주의적 인식에서 포용하려는 것이 아니다. 동아시아에서 수평의식을 언급할 때 중국과 주변부 사이에서는 별로 긍정적인 역사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동아시아에 대해서 수평주의적 인식이 부재한 중국은 “중국 대 서구”의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동아시아주변부를 바라보고 있다. 이는 바로 옆에 있는 존재인 아시아를 존중하지 않고 단지 서구와 대응하는 수단으로만 여긴다는 의미이다. 그

러면서 동아시아에서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 세계중심인 미국과 서구가 세계 주변부인 아시아를 상대하는 방식으로 동아시아를 대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주변부는 지역의 중심인 중국과(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외부인 서구에 대해 중층적이고 동시적인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자신만이 동아시아의 중심이자 대표라고 하면서 미국만을 상대역으로 바라보려는 중국은 주변부 동아시아사고와는 대조적인 일종의 중심주의적인 동아시아사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근대이래의 중국 동아시아사고의 특성과 전개에 대해서 주변부의 시각에서 분석과 비평을 시도해 본다.

## II. 중국의 초기 동아시아사고의 태동과 전개

### 1. 미약한 동아시아의 존재인식

아편전쟁 이래로 동아시아에서의 중화체제는 와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연이어 서구와 일본의 침탈로 인하여 중국은 반식민지상태로 전락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시대적 요청에 따라 중국지식인들은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의 이웃나라들을 우방으로 간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중국의 동아시아인식은 19세기 말 이래로 서세동점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는 달리 중국은 외부의 충격이 금방 내부의 변화를 추동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온 위기를 대면하는 의식과 사고의 내부적 재조정을 밟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사고체계는 위잉스(余英時)(1984)<sup>3</sup>의 분석에 따르면 서양의 “외재초월형문화”에 비해서 중국은 “내향초월형문화”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은 외부세계의 자극에 대

3. 한국어 번역은 김병환(2007).

해 그것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신의 고유의 것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상당기간 내적갈등상태에 돌입하는 데 이러한 긴장을 통하여 스스로 체득한 조화의 원리를 내재화 한 연후에 그 틀 안에서 행위 하려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따라서 중화주의적 사고의 몰락을 목도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에서 떨어져 나간 동아시아의 독립적 존재의식을 내면화하는 데는 상당한 지적인 갈등이 필요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동아시아인식에는 그러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미약한 동아시아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아직도 주요 학문적인 연구저작에서 보듯이 문명과 문화적 개념에서 아시아전체를 나타내는 일본에서 생성된 용어인 “동양”<sup>4</sup>이라는 개념과 “동아시아”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에 중국에서 나온 서구를 표현하는 “서방”에 대응하는 용어로 “동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sup>5</sup> 『東方哲學概論』이라는 서적에서는 그 범위가 동아시아를 넘어서 인도, 아랍, 고대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철학을 망라하여 다루고 있다(任厚奎, 1991). 그러나 같은 유교권인 동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베트남 철학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사고하려는 경향이 없다. 그래서 “동아시아철학” 혹은 “동양철학”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들을 모두 포함한 의미에서 “중국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동아시아주변부의 철학의 존재여부에 무관심하다(조동일, 2007: 35-45). 이는 중국의 주요사상가들의 저작의 표제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sup>6</sup> 따라서, 중화체제에서 떨어져 나간 동아시아에 대한 존재인식에 대한 중국의 자각은 지적, 문화적 영역에서 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동기에서 생성되었다

- 
4. “동양”이라는 용어는 일본이 중화체제의 하위체제에서 벗어나 중국과 동등한 자주적인 존재임을 자각하면서 만들어낸 용어지만 이제는 학문과 문화의 영역에서는 아시아 혹은 동아시아를 의미하는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 “동양”이라는 용어의 생성과 시대적 함의에 대한 연구로는 Tanaka(1993).
  5. 당시 중국을 대표하는 철학자인 梁漱溟(1989: 317-547)은 저작에서 “東方”과 “西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6. 위잉스(余英時)의 저작인 『從價值系統看中國文化的現代意義』(『가치체계로 본 중국문화의 현대적 의미』)의 한국어 번역본에서 역자 김병환은 이 책이 중국과 서양 문화를 비교적인 시각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많은 곳에서 “중국”대신 “동양”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번역서의 표제도 『동양적 가치의 재발견』으로 변경되어 출판되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무렵 서구와 일본의 제국주의침탈은 중국엘리트들이 전통적으로 가졌던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절대적지위에서의 沒아시아적 인식에 변화를 추동하였다. 즉,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상대적지위로 격하되면서 동아시아인식의 각성이 미약하나마 나타나게 된다. 이 무렵 나오게 되는 “범아시아주의”는 이를 명시적으로 잘 나타내는데 중국의 본격적인 동아시아인식의 생성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동시에 동아시아에 대한 위계적 인식의 한계도 잘 나타내 주는 것이었다.

## 2. 범아시아주의의 위계적 동아시아인식

五四운동 이래 중국은 내부적으로는 쑨원의 국민당에 의한 민족주의혁명과 군벌에 의한 반동정치와의 갈등이 전개되고 있었다. 국외적으로도 서구와 일본의 중국에 대한 이권침탈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19년 리따자오(李大釗, 1984a; 1984b; 1984c)<sup>7</sup>는 그의 세편의 논문에서 당시 일본이 주창하는 “대아시아주의”는 단지 중국과 아시아의 약소국가들을 병탄하기 위한 야심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래서 그는 “신아시아주의”(李大釗, 1984b: 611; 리따자오, 1997: 165)로서 일본과 서구제국주의에 대항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로써 여타 아시아약소국들에게 민족자결주의와 주권에 대한 자각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신아시아주의는 반일본제국주의의 기치를 높이는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의 단결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아시아주의도 중국 중심적인 인식을 지속하고 있었다. 즉, “진정 중국이 없으면 아시아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 중국인이 진정으로 자립할 수 없다면 아시아인은 세계 어느 속에 존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李大釗, 1984a: 449-450; 리따자오, 1997: 161)라고 하는 중국 중심주의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아시아주의는 주변부존재에 대한 논리

7. 세 편의 논문 중에서 「大亞細亞主義」와 「大亞細亞主義與新亞細亞主義」는 유용태의 번역으로 「신아시아주의」라는 제목으로 합쳐져 최원식 외(1997)에 실림.



적 인식이 결여된 정서적인 아시아주의였다. 그는 계속하여 “(중국)은 그 세력이 전아시아문명을 대표할 만하거니와 이는 우리 스스로 자찬하는 바가 아니라 실로 세상이 공인한 바이다. 그러므로 대아시아주의자는 마땅히 중화국가의 재건과 중화민족의 부활을 절대적인 관건으로 삼아야 한다 ... 우리 국민이 대아시아주의를 건립할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마땅히 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지위를 자각하고 아시아를 우리 중국인의 아시아로 여기며, 신문명을 창조하고 신국가를 건립하여 세계 속에 존립하게 함으로써 서양의 문명민족과 서로 대립하게 해야 한다.”(李大釗, 1984a: 450; 리따자오, 1997: 161-162)라고 하면서 중국 중심의 “대아시아주의”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리따자오의 아시아사유는 중국과 식민화된 아시아 국가들과의 단결을 외치면서도 동시에 중국의 운명은 곧 아시아의 운명임을 각인시키고 중국이 중심이 되어 반제국주의투쟁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는 전통시대의 중화사상의 영향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아시아대표의식과 중아일체의식적인 사고를 나타내고 있으며 몇 년 후에 나오는 쑨원의 “범아시아주의” 연설에서도 그 논조와 정서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 가지 구별되는 면은 리따자오가 일본의 “대아시아주의”에 대한 저항을 명백히(李大釗, 1984c: 109) 한 것과는 달리 쑨원은 일본에 대해서 모호한 찬미와 비판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이다.

쑨원(1997: 166-178; Sun, 1941: 141-151)의 1924년 11월 일본 고베(神戸)에서의 “범아시아주의” 연설은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군벌들의 준동, 외부로부터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탈로 인하여 혼란으로 빠져든 시기에 나온 것이다. 그는 유교사상의 철학적 가치를 재차 강조하였다. “동양문명은 정의의 통치이며 서양문명은 힘의 통치이다.” 이 양자 간의 가치의 차이를 분명히 하면서 그는 “정의의 통치는 인(仁)과 덕(德)을 존중하고 힘의 통치는 힘과 공리주의를 존중한다.”고 설파하였다(쑨원, 1997: 171). 그는 아시아 문명의 도덕적 측면이 “범아시아주의”의 기초이며 도덕적 힘이라고 주장하였다(쑨원, 1997: 172). 이 연설에서 그는 소련에 대해서 유럽에서 유일하게 인과 덕을 갖춘 “왕도”의 국가라고 칭찬하였다(쑨원, 1997: 176). 소련이 다른 유럽국들에 비해 식민지를 획득하는 데 뒤떨어 진 것은 그로 하여금 중국과 다

른 아시아 국가들을 침탈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그는 러-일전쟁의 결과를 평하면서는 아시아국가가 유럽 국가인 러시아를 이긴 것은 몇 백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며 일본의 승리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일본을 찬양하고 있다(쑨원, 1997: 168-169). 그는 아시아의 정의의 통치가 유럽의 힘의 통치를 결국은 압도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구에 저항하기 위한 아시아의 단결을 외치고 있다.

표면적으로 쑨원의 범아시아주의 연설은 서구제국주의에 대항기 위해 아시아의 단결을 주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 시기에 그는 국내에서 그의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으며 따라서 외부에서 정치적 우군을 절실히 찾고 있는 과정에서 일본을 내심 주목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의 연설은 따라서 제국주의에 대항기 위한 중국-아시아국가의 연결보다도 중국-일본의 협력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한국의 지식계는 해석을 하고 있다(백영서, 2000: 57-58; Baik, 2002: 277-286). 따라서 연설의 말미에 이르러서 일본에게 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패도”가 아닌 “왕도”를 택하라는 권고(쑨원, 1997: 178)를 하고 있는 것도 중국과의 협력을 은연중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당 실력자였던 왕징웨이(汪精衛)(1997: 182-183)<sup>8</sup>의 주장에서도 간파 할 수 있는 데 그는 쑨원이 “범아시아주의”연설을 행한 같은 해에 광저우(廣州)에서 “國民政府建國大綱”을 직접 제창하면서 “중국혁명의 성공은 일본의 양해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방침을 언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추론해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연설에서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와 타이완에 대한 합병조차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서구식의 제국주의모방을 비판하면서도 이웃 국가들의 식민화에 대한 무관심은 당시 조선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쑨원이 아직도 대국주의적 정서로 다른 동아시아주변국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하였다(민두

8. 이 자료는 『汪精衛國民政府成立』, 上海, 1984년에 실려 있는 것을 백영서가 번역한 것임. 원전은 汪精衛, 1939, 「中國與東亞」, 『中央公論』, 625호, 10; 『中華日報』, 1939. 7. 10.

기, 2002a: 54-62; 민두기, 2002b: 151). 그들에게는 쑨원의 아시아사고의 현저한 특징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조선에 대해 철저하게 무시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쑨원이 칭찬한 일본의 러일 전쟁승리의 결과로 일본에 의한 조선병탄을 외면하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이 일어났으며 또한 침략자 백인종을 대표하는 러시아에 대해서 황인종 대표인 일본의 승리를 칭송하면서 동시에 소련의 인과 덕을 칭송하고 있는 모순적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었다. 중국 지식인인 쑤꺼(2003a: 55)는 쑨원의 연설이 중국식의 왕도와 패도라는 이분법으로 동-서 문명을 구분하면서 중국 중심주의적인 사고가 여전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당시에 쑨원의 연설에서는 중-일 연대를 피하면서 문화적 잠재심리에 “약자를 봐준다”라는 대국주의적 정서가 체현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孫歌, 2000: 58). 부연하면, 왕도에 대한 강조는 여전히 동아시아를 왕도의 중심으로 상징되는 중화체제 내부에 포용하여야 한다는 중국 중심의 위계적 세계관의 표명으로서 이는 좋은 동기를 내세우면서도 역설적으로 동아시아 주변부에 대한 존재인식이 여전히 미약하다는 사실을 잘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를 고려하면 그의 범아시아주의는 논리적인 아시아주의라기 보다는 리따쟈오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정서적 아시아주의의 측면이 농후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의 연설은 논리적으로 체계화된 것이 아닌 한편으로는 침략위기에 처한 조국에 대한 애국적 심정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또 다른 편에서는 중국 중심의 황인종의 범아시아주의로서 서구의 백인종과 맞서지는 인종주의에 의지한 정서적 호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국주의로부터의 위기상황에서 아시아의 단결을 촉구하면서 일본에게 같은 아시아로서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으나 일본에 의해 식민화된 아시아의 주변부인 조선, 타이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쑨원의 범아시아주의는 결국 주변부의 존재인식을 결여한 상태에서 몰락한 중화의 자존심과 현실적인 힘과의 거리감에서 생성된 고뇌가 혼재된 체로 들어나 있다. 결론적으로, 그의 범아시아주의는 논리적으로 체계화된 것이 아닌 정서적인 것으로서 중국은 아시아 그 자체이자 대표라고 하는 위계적 정서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주목할 것은 리따쟈오와 쑨원의 위계적인 아시아주의와는 달리 이들 보다

도 몇 년 앞서서 사회주의적 무정부주의자였던 류스페이(1997: 135-159)의 아시아주의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아시아를 사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논리는 근래의 동아시아담론의 시각과 비교하여도 진보적이며 구체적이기까지 하다. 동아시아담론에서도 진보적이면서 주변부적인 시각을 이미 그의 논지에서 상당 부분 발견 할 수 있다. 쑨원과 리따자오와 달리 인상적인 것은 중국지식인인 그가 아시아 주변국들의 존재를 명백하게 인식하고 그들의 독립을 위한 처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까지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쑨원과 리따자오는 주변부를 소외시킨 중국 중심의 아시아의 단결을 외치고 있는 데 반해 류스페이는 주변부중심의 아시아주의를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어서 당시로서는 이상적이기 까지 하다. 그의 논문은 제국주의 지배하에 있는 아시아 약소국들 — 인도, 베트남, 조선, 필리핀 — 의 상황을 열거하면서 이들의 독립에 대한 각성과 항거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시작되고 있다(류스페이, 1997: 135-148). 이 같은 그의 상세한 이론 전개는五四시기 중국의 어느 지식인, 정치인보다도 아시아 주변국가에 대한 존재인식이 각성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변부의 존재에 대한 각성과 함께 무정부주의를 제창한 것은 구체적인 의미는 차이가 있지만 마치 21세기 동아시아담론의 “탈국민국가주의” 시각을 연상시킨다. 즉, 제국주의국가들의 약소국에 대한 착취를 비판하면서 중국의 역사에서도 진시황(秦始皇)이나 한무제(漢武帝)가 군사력을 증대하고 약소국을 정복하면서 그 힘과 권위를 자국의 인민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도 삼았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강대국의 인민들도 민생의 고통을 느끼는 자들은 국가주도의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유럽의 소국들은 러시아나 독일 같은 강대국에 비해서 대외적인 힘은 약하지만 인민들은 자유와 행복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고 지적한다(류스페이, 1997: 149-150). 이러한 분석에 의거해서 류스페이는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의 실현을 주장하면서 국민국가주의와 더불어 대국주의를 부정하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논지에서 중요한 점은 일국의 사회주의혁명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시아 약소민족의 해방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국가에서 사회주의나 무정부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강국

(제국주의국가)들로부터의 무력에 의한 점령통치에서 해방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현실적인 생각에서일 것이다. 계속하여 그는 아시아 약소민족의 해방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른바, 류스페이(1997: 149-152)는 주권을 상실한 아시아 약소민족이 강대국의 “민당(民黨)”과의 연합으로 독립을 쟁취할 것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독립노동당”, “사회민주동맹” 등의 인도독립지원, 일본 “사회당”의 조선에 대한 후원 등의 사례를 들고 있다. 이러한 이론 전개는 그가 강대국내에서도 정부와 자본가에 의해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인민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한다고 하는 국제사회주의적인 믿음과 무정부주의에 대한 신념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는 이러한 믿음을 아시아약소국들의 제국주의에 대한 해방과 연결시켜 사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사고는 서구제국주의국가의 아시아식민지에서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독립을 획득하게 하면서 제국주의국가를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전복시킨다는 레닌(V. I. Lenin)(1975: 596-600)의 “동방우회전략”의 논리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와 달리 동아시아주의적인 조망에서 보면 마치 오늘날 한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동아시아담론의 논자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동아시아사회에서의 “시민-지식인 연대”가 국민국가를 설득해야 한다는 논리적 지향과 일맥상통하는 측면도 있다. 그의 아시아 사고의 특징과 동아시아담론의 논지-주변의 시각, 탈중심주의, 탈국민국가주의가 일치되는 부분은 다음 같은 문장이 가장 압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만약 현재 아시아의 각 약소민족이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를 잘 이해하고 나아가 그 두 당과 연대한 위에, 독립을 선포하기 전에 강국에 거주하는 자로 하여금 비군국주의를 고취시켜 본국의 군대를 해산하게 하고 약소민족의 독립심을 견고하게 한다면 강국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독립을 선포하면 강대국은 많은 병력을 파견하여 진압하려 할 것이다. 그때에도 역시 그 강국의 민당과 연대하여 군사물자의 수송을 방해하고 집단적 병영탈주(동맹파업)의 사상을 군대 속에 불어넣는다. 그리하여 당의 세력이 충분히 강력하게 되면 그들과 호응하여 대책을 강구하면서 각 식민지의 민당이 동시에 난을 일으킨다. 그렇게 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각 정부는 내란을 진압하는 데 바빠 원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북만주와 중앙아시아의 인민들도 역시 러시아와 동아시아의 민당의 도움을 얻어 자유를 획득한다. 그렇다면 동아

시아의 강권은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이것이 아시아가 독립하기 위한 책략이다.”(류스페이, 1997: 156).

비슷한 시기에 나온 아시아론들 중에서 중국지식인들이 류스페이의 “탈중심주의”와 “수평주의”적인 아시아관보다도 리따자오와 쑨원의 중국 중심의 위계적 아시아관을 계승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그의 주장은 유교문화의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적 지식인들에게는 지나치게 이상파괴적으로, 군벌과 국민당에게는 반국가적으로,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천두슈(陳獨秀)는 중국공산당의 초기 지도자답게 무정부주의를 몰개급적, 몰역사적인 관점이라고 비판하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독재를 주장하고 있다(現代中國哲學敎研究室編, 1988: 125-134).<sup>9</sup> 당시 아시아의 약소국들과 중국은 일본처럼 서구식의 근대국민국가체제를 건립해야 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인 때라서 류스페이가 탈국민국가적 사고에서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논조는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무정부주의적 사고는 21세기의 탈국민국가 시대가 아닌 근대국민국가 체제를 건설하려던 시대의 지식인들에게는 지나치게 진보적이라 실천적 이념보다는 오히려 당시 제국주의횡포와 근대자본주의적 국민국가주의의 폐해에 대한 비판의 조망으로서 호소력을 가졌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엘리트들 보다는 민중을 중시하고 강대국과 약소국에서의 민중이 서로 연합할 수 있다는 민중연대의 사고를 내세운 것도 중요한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지나치게 진보적인 무정부주의 요소를 소거한 순수한 아시아주의에 대한 사고만을 따로 분리시켜 보려는 분석적인 시도가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지도 모른다. 일본의 다케우치 요시미(竹內好)는 “동아합방론”이나 “대동아공영권사상”에서 침략의 요소와 순수한 아시아연대의식을 분리시켜 각각 역사적으로 부정적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당시 중국의 정치엘리트, 지식인들은 류스페이의 이론을 분석할 때 이러한 분리적 접근이 분명 필요하였다. 결국 류스페이의 진보적 아시아론은 이후 그 자신의 정치적 전변행위로 인한 신뢰상실에 더하여져 중국사회와 지식계에 별 영

9. 원문은 「談政治」, 『新青年』 第8卷 第1號, 1920년 9월 1일에 실렸음.

향을 주지 못하고 일회적인 주장으로 끝나고 말았다. 특이한 것은 오늘날 그의 진보적인 주장들이 주변부 동아시아담론의 논지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당시의 중국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못했지만 류스페이가 주장했던 내용들 중에 진보적 측면 즉, 동아시아에서의 “수평주의”적 인식과 “민중 간의 연대의식”은 21세기에 와서도 지역의 중심국인 중국과 주변국의 지식인과 정치엘리트까지도 발전시킬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주변부의 관점에서 중국의 아시아주의 각성의 초기에 해당하는 쑨원과 리따자오의 주장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류스페이와는 달리 당시 식민화된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마땅한 위상을 자각한 흔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주장에서는 서구에 의해 식민화된 동남아, 일본의 조선과 타이완합병에 대한 이렇다 할 비판의식을 찾아 볼 수 없다. 단지 서구의 패도에 대항하는 수단으로서 중국 중심의 왕도사상 하에 아시아 모두가 뭉쳐야 한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의 아시아사고에는 중화체제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아시아라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는 중국이 곧 아시아를 대표하거나 아시아 그 자체라는 사고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중국과 아시아의 단결을 외치고 있지만 류스페이의 논리에서와 같은 구체적인 단결의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아시아를 서구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회의마저 든다. 결국, 이 당시 범아시아주의가 표방하는 사고는 중국만이 문화와 정치적으로 서구에 대항할 수 있는 아시아의 유일한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또한 여타 아시아국들을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지도 않으면서 막연하게 중국과 그들과의 단결을 외치는 “포아론”적인 사고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위계적 아시아의식이 생성된 배경은 첫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먼저 근대적 세계체제에서의 국민국가로의 개혁을 수행하였고 중국은 아직 근대적 세계체제에서의 국민국가주권의식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적용하여 사고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무렵 제국주의 위협을 받던 시기에 나온 중국의 “범아시아주의”는

일본의 “아시아연대론”보다도 — 침략적 요소를 논외로 하고 — 상당히 그 함의가 불분명한 것이었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화체제에서의 위계 인식과 근대적 세계체제에서의 상호 평등한 국민국가주권의식이 혼재된 상황을 잘 나타내는 징표이기도 하다. 그리고 중국이 확고하게 주권이 확립된 상황이 아니었던 반식민지상황에서의 혼란상태도 이러한 불명확한 아시아인식의 동기가 되었다.

둘째, 서세동점의 시대에 중국의 타지는 유일하게 서구이며 중국만이 서구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대표적인 존재라는 “중국 대 서구의 이원적 세계관”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sup>10</sup> 왕후이(汪暉)(2003a: 247)도 공감하는 이러한 이원론적 세계관은 중국 지식인들이 아시아보다는 서구에 대해 일차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세계관은 천하의 유일무이한 존재인 중국 중심의식이 서구의 등장으로 인해서 상대적 해체상태로 나아가는 징표이기도 하지만, 서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도 중국의 인식에는 미약한 존재임을 나타내주는 징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국의 세계관의 맥락에서는 중국은 아시아 그 자체이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하위에 있는 작은 단위일 따름이다. 따라서 중국 지식인들에게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문제는 그들의 이론과 토론에서 독립된 주제로 인정받기가 힘들다.<sup>11</sup> 반면에 중국은 서구에 대해서는 항상 중국이 배워야 하는 “모범”으로서 혹은 대치하면서 극복해야 하는 “적”으로서 주목하고 있다.

“범아시아주의” 등장 이래로 중국에서의 아시아사조의 발전적 전개는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경쟁과 내전, 중일전쟁 등 국내적으로 전쟁상태에 진입함으로써 휴지기를 맞이하였다. 이어서 냉전시대의 이념적 대치상태로 인해서 동아시아지역의 공통적인 주제 — 동아시아의 근대사문제 — 에 대한 지적

10. 타이완의 동아시아담론 이론가인 천광썩(陳光興)의 정의에 의하면 근대이래로 서구의 침탈을 받으면서 이러한 “중국 대 서구의 구조”(China vs. the West structure)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형성되었다. Chen(2002: 241).

11. 중국의 아시아에 대한 위계적 인식에 대한 논의는 白永瑞(1999). 이에 대한 중국 지식인의 입장에서의 답변적인 문장은 孫歌(2000). 중국의 한국인식에 대한 동아시아 담론의 맥락에서의 비평은 필자의 논문 Koh(2008).



인 토론을 정체시켰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주의에 대한 지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발전적으로 전개될 수 없었다. 탈냉전은 이러한 정체상황을 이성적인 토론이 가능한 상황으로 변화시켰다. 근래에는 동아시아지역 주의 흐름이 확산되면서 동아시아담론이 전개되고 있다.

### III. 탈냉전 시대 비판적지식인의 동아시아담론

#### 1. 왕후이의 동아시아사고<sup>12</sup>

탈냉전 시대 중국의 동아시아담론은 발생을 추적해 보면 한국에서처럼 자생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고 탈냉전 이래로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주변부 동아시아담론의 지식인들과 교류를 증대하면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본다.<sup>13</sup> 중국에서의 동아시아담론은 80년대 이래로 중국에서 지속되어온 개혁개방정책과 9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발전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비판적 지식인들의 대안 찾기의 노력에서 주변부 동아시아담론의 주장들과 공감어 되는 부분을 발견하면서 전개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들의 동아시아에 대한 언급과 논지들은 거의 주변부 지식인들과의 교류의 과정에서 나온 경우가 적지 않다. 2004년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결성한 “인터-아시아문화연구협회”(Inter-Asia Cultural Studies Society: IACSS)는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그룹에게 비슷한 성향의 동아시아학자들과 교류하는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sup>14</sup> 이 협회는 동아시아의 통합을 위한

12. 이 부분은 필자의 논문 고성빈(2007)에서 중국의 담론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였음을 밝힌다.

13. “비판적 지식인”이란 개념은 왕후이의 정의를 따랐다. 그는 자국의 지식계에서 자신에 대해 “자유주의자” 혹은 “신좌파”라고 분류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사상적 조류에 있는 지식인들을 “자유주의좌파” 혹은 “비판적 지식인”으로 정의내리길 희망한다. 왕후이와 이옥연과의 대담(2000). 이외에도 중국에서 신좌파로 분류되는 인물은 崔之元, 韓毓海, 何清連, 劉康, 李陀, 戴錦華, 甘陽, 王彬彬 등이다. 중국의 신좌파에 대해서는 이옥연(1999).

지식과 이론을 창출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의 지식인 그룹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2년마다 학술대회를 열고 있고 이 방면의 저널과 책의 출판도 하고 있다.

이러한 협회의 운동에는 동아시아각국의 주요 저널들이 참가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의 주요 저널인 『讀書』의 편집자를 역임했던 왕후이는 한국의 비판적 지식인과 교류하면서 동아시아에 관해 많은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한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의 주요한 저널인 『창작과 비평』 40주년을 축하하는 그의 메시지에서는 중국지식인들의 동아시아에 대한 성찰적인 면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서구편향적이고, 미국편향적인 경향을 치유하려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반도의 핵위기에 대해서는 한국지식계의 논평을 구하고, 타이완의 식민역사와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타이완학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의 역사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중국(홍콩과 타이완을 포함한), 일본,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토로할 수 있는 국제세미나를 그동안 여러 번 개최하였다.”(왕후이, 2006: 43-44).

이와 같은 서술은 상술한 대로 근래에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부 지식인들과의 교류가 그들에게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

중국에서의 80년대는 자유주의적 발전을 추구했던 시대이다. 90년대는 왕후이 등의 비판적 지식인이 등장하면서 80년대의 발전이 조성한 사회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회고와 성찰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은 국가와 결탁하여 소수의 부만 창출하고 있으며 그래서 국가주의는 더욱 강해지고 다수민중은 오히려 자유가 축소되면서 억압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판하면서 탈서구적인 시각에서 전지구적 자본주의발전의 대안을 찾기 시작하였다.<sup>15</sup> 결국 맹목적 서구식 발전주의에 대한 대안을

14. <http://www.inter-asia.net>(검색일: 2007년 5월 26일).

15. 중국 신좌파의 서구식 현대화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汪暉(2000). 이 논문의 번역은 이희옥(2000a; 2000b). 그 밖의 자료는 崔之元(1994; 1997); 戴錦華(1999); 安

모색하는 것은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며 동아시아사고에서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주변부 지식인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동아시아사고를 대안으로 고려하게 된 것은 탈서구식의 발전을 추구하는 데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사고의 한계를 미약하나마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중국 중심주의적인 동아시아사고로는 서구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침투, 중국위협론을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주변부 국가들과의 협력에도 장애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여타 주변부 지식인들이 주창하는 동아시아담론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탈근대, 탈서구, 전 지구적 자본주의발전의 대안모색이라는 주제와 공통적인 지향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왕후이(2003b: 224-225; 汪暉, 2008: 167-168)는 동아시아담론을 일종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된 아시아의 사회운동으로 여기면서 많은 기대감을 표명한다. 그가 보기에 “아시아 각지의 사회운동은 신자유주의의 전지구화추세와 국가정책에 대한 저항에서 발전된 것이며 따라서 아시아 각지의 사회운동을 연결하는 매개체는 마땅히 신자유주의/신제국의 세계질서와 국내정책에 대한 저항이자 비판”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아시아 상상은 20세기의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목표와 과제를 뛰어넘어야 하며 동시에 반드시 새로운 조건에서 이들 운동이 해결할 수 없었던 역사적 과제를 탐색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운동은 새로운 냉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낡은 냉전과 그 파생형식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식민관계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하거나 새로 생겨나는 식민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을 당대 아시아구상의 중요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시아담론은 역사적으로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적 현대성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포함하였는데 20세기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이 이미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잔영은 여전히 새로운 아시아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원천이라고 하고 있다. 그는 20세기의 아시아담론이 어떻게 식

민주의와 자본주의에 유효하게 저항하고 그것들을 바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논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면, 근대 아시아의 역사적 유산으로서 민족해방 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동력, 격정적이고 미완성인 임무는 모두 새로운 탈냉전 21세기의 아시아사유로 전화되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그의 주장은 쑨원과 리따자오의 반제국주의적 범아시아주의와 일맥상통하게 전지구화와 신자유주의의 세계질서에 대한 아시아의 공통적인 저항과 비판운동으로 동아시아담론의 생성배경을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 아시아의 운동을 “비판과 저항”이라는 언어로 압축하면서 과거 근대화의 좌절에서 겪었던 역사적 고통과 연결시키면서도 이 운동은 새로운 냉전과 식민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 그러한 가능성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단순히 쑨원과 리따자오의 “정서적”이 아닌 한 단계 진전된 “논리적”인 아시아주의를 그리려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동아시아담론에 대한 기대가 잘 대변해 주듯이 점차로 중국에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지식인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신자유주의적 발전에 대하여 중국의 사회주의전통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찾아내어 대안을 삼으려고 한다. 따라서 그들은 반대자들인 신자유주의 지식인에 의해서 “신좌파”로 분류 되고 있으나 그들 자신은 좌우이념의 이원적인 분류에 반대하면서 “자유주의좌파” 혹은 “비판적 지식인”으로 불리기를 희망한다. 물론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모두 동아시아담론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견해에는 다음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원래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동아시아담론보다도 개혁이래로 발생한 중국의 새로운 문제 — 지역격차, 사회적 불평등, 부정부패 — 들에 대한 비판으로서 논지를 전개하였다.<sup>16</sup> 서구와 미국주도의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발전모델을 추수하는 것을 반대하며 국가발전에는 중국적인 것과 사회주의적인 것을 옹호하고 그로부터 좋은 것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그들의 비판자들에게는 중화성의 옹호자로 혹은 민족주의로 비추어지기도 한다.<sup>17</sup>

16. 이에 대해서는 汪暉(2000). 한국에서의 중국 신좌파에 대한 연구는 이육연(1997; 1999); 백승욱(2002).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주변부인 한국의 동아시아담론에서의 탈서구, 탈근대적 발전의 논지와 가까워지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본고의 주장이다. 즉 한국과 중국에서의 동아시아담론은 미국과 서구주도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발전모델이 역사의 목표라는 담론, 민족국가가 궁극적인 주요단위인 근대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일종의 “탈근대주의 지향”을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왕후이(2003a: 243)의 대답에서 상기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는데 그는 사실 신자유주의의 진정한 문제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격차와 독점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아시아의 협력은 신자유주의와 더불어 패권과 독점, 일국지배에 반대하는 폭 넓은 사회운동의 일부이어야 하고 그 전제는 “아시아사회의 비판적 국제주의”여야 한다고 담론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동아시아 지역과 국가는 세계 자본주의의 두 번째 중심지역임을 강조하고 있다. 왕후이(2003a: 245-246)는 하지만 동아시아는 아직도 미해결된 문제가 남아 있는데 특히 근대사에 대한 인식차이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한반도와 타이완해협 사이의 위기는 식민주의와 냉전, 현대세계의 패권구도와 내적 연관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동아시아국가 사이에서는 전통적으로 문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상호의존과 보완성을 지니고 있고 인적교류도 활발하다고 하면서 따라서 냉전의 그림자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패권적 지배에 어떻게 저항하며 역사의 짐을 벗어버리고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는 지식인들의 공동사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이들은 전 지구적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지식계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자본주의/사회주의의 양분법을 거부하고 근대성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근대성을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중국의 사회주의에서가 아닌 근원적으로 동아시아에서 근거를 찾으려는 문명론적 전망이 아직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옥연, 1999: 223). 이러한 주변부의 비판적 시각은 그대로 중국지식계와

17. 비판의 논지에 대해서는 任劍濤(1999); 陶東風(1999); 汪丁丁(1999); 李歐梵 外 (1998). 이들의 주장을 정리한 한국자료는 이옥연(1999).

교류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면서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동아시아담론에서의 대안모색의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왕후이(2003a: 247-248)는 동아시아담론이 과연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중국의 사회운동이나 변혁운동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 그는 지난 세기 이래 중국의 자기인식은 다양한 상황에서 중국-서구의 대비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아시아국가 사이의 교류나 상호추동과 비교해서 이루어진 경우는 드물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은 아시아각국 사이의 상호이해와 교류를 제한했고 각자 사회의 자기이해에 방해가 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아시아담론은 중국사회의 자기인식을 촉진하고 동아시아사회가 상호연동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현세계의 구도와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와 신식민주의는 자원의 쟁탈을 초래하는 경제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이며 단일사회내부에서 극복하기 힘든 문제라고 한다. 따라서 다른 국가와 지역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공동운명체라는 감각과 이러한 감각에 기초한 국제주의를 토대로 대안적인 발전의 길을 모색할 것인지가 긴박한 과제라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동아시아담론은 역사적으로 대국패권주의와 연계되어 있었고 약소민족의 자결과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따라서 동아시아담론이 과연 자본주의세계화를 대체할 대안적 선택이자 비판적 사고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왕후이의 논의에서 긍정적인 면은 중국의 자기인식이 지나치게 “중국 대서구”의 이원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다는 면이다. 그렇지만 동아시아담론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아시아사회의 상호연동적 구조”와 다른 국가와 지역의 지식인들의 “국제주의”를 대비시키면서 긍정적이지만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같이 대안으로서의 동아시아의 존재인식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있으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어중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직도 “중국 대 서구”라는 이원적 세계관의 그늘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주변부의 시각에서는 탈냉전 시대 국민국가의 역할과 존재는 과거와는 달리 배타적 주권과 경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증대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공동체구상에서도 지역 국가 간의 네트워크적인 측면과 수평주의적 관계를 강조한다. 그러나 중국의 지식인들은 아직도 국민국가의 배타적 주권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며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동아시아공동체 구상도 지적인 상상과 국민국가의 네트워크구축이라는 이해보다도 주로 경제교류확대의 관점과 또한 미국-일본의 동맹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와 안보적 측면의 협력체라는 관념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것은 중국이 아직도 강한 국민국가주의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sup>18</sup> 이 같이 21세기 세계화현상의 전개와 더불어 동아시아사고에서의 공동체논의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국민국가주권이 “상대화”되는 탈근대시대에 여전히 근대성에서의 주권의 배타성에 집착하는 경향은 중국이 동아시아 연대와 공동체구축에서 일종의 강한 국민국가주의 혹은 달리 표현하면 대국주의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며 그것이 중국의 위계적 동아시아사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본다.<sup>19</sup> 단지 미국, 서구에 대해서 동아시아적 대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강한 국민국가주의를 견지하면서 지적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수평주의적 사고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는 정도라고 본다.

왕후이(2003a: 249)는 현대자본주의의 주요특징은 언어와 풍속 등 문화적 다양성을 와해시키는 것인데 현대사회의 정치형식으로서 국민국가는 약소국의 사회가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백영서의 주장인 동아시아가 과거 “강한 국민국가의 꿈”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강대국의

18. 이러한 지향에 대해서 백영서는 동아시아가 “대국의 꿈”(強國夢)이라는 근대성에 사로잡혀 왔다고 비판한다. 白永瑞(1999: 3).

19. 동아시아가 근대세계체제에 진입하던 시기에는 주권의 배타성이 세계체제에서 국가 간 수평주의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21세기 탈근대적 시각에서 보면 주권은 변화와 상 대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주권페러다임의 탈근대시대로의 변동적 이행에 대해서는 Negri(2000; 137-159).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이 거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함의는 이제 이러한 국민국가주도의 저항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탈냉전시대에 동아시아의 지역적 조화를 추구하는 탈중심적이고 주변에서 주도하는 지역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세계화자본주의체제에서 국민국가는 다양성을 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중국헌법은 민족지역자치의 권리를 확립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실시된다면 다원적 문화, 사회의 내부협력체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논하면서 중국의 내부통합적인 국민국가이념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다. 이어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국민국가내부관계의 변화는 국제관계의 조정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첫째, 그가 민족지역자치를 보장한 중국헌법을 언급한 것은 헌법으로 상징되는 국민국가주의는 내부에 존재하는 복수의 소수민족사회의 다양성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의미이다. 나아가, 중국은 내부에 이미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대국이며 그러한 사실은 동아시아가 복수의 국민국가를 내부에 포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그는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왕후이의 사고에는 중국의 중심주의적 특성이 이미 담겨있다. 즉, 국민국가로서의 중국은 내부에 이미 민족자치지역으로 구성되는 “다양성”과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통합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유추하면 본고의 가정 즉, 중국이 동아시아를 자기중심의 동심원안에 포용하여 사고하려는 구심적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 동심원 내부의 동아시아는 다양한 국민국가로 이루어졌는데 그들을 중국이 통합하고 있다는 사고로 해석 될 수 있다.

둘째로, 주위환경의 영향이 국민국가내부관계의 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아직도 내부에 미해결 문제 — 통일,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 를 안고 있는 중국이 미국, 서구, 일본과의 관계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한 대로 “중국 대 서구” — 일본을 포함하여 — 의 대결구도에 대한 견제인식이 여전히 국민국가주의를 초탈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중심주의적 담론의 특징은 한국의 주변부 동아시아담론의 주창자인 백영서(白永瑞, 1999)의 논문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대변하는 쏘냐



(孫歌, 2000)의 대응을 비교하면 명확히 들어난다. 양자의 논문을 비교해 보면 동아시아담론에서의 지적인 상상의 측면을 중국지식인들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특히 국민국가의 역할에서 중심-주변의 시각을 대표하는 이들의 견해는 미묘한 차이점이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같은 쑤꺼(孫歌, 2000: 57)의 언급에서 동아시아담론에 내포한 공통인식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아시아담론은 한편으로는 국민국가의 조망을 극복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협력을 진행하는 데 국가 간 권력의 불균형을 덮어 버리는 위험을 안고 있다. 불균형은 경제력이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우리는 따라서 민족주의와 아시아주의, 불균형한 경제와 수평적 인식을 강조하는 지적인 제안들 사이에서 곤경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실제상황에서는(지적인 상상과는 달리) 그렇게 분명한 선택은 없기 때문이다.”<sup>20</sup>

이러한 언급은 담론이 국민국가에 대해서 새로운 조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동아시아국가들 사이에 국력의 불균형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그녀의 견해는 제3세계에서 탈식민주의 담론이 보수주의적 정서를 정당화 시켜주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견해를 각인시킨다(Dirlik, 1997: 52-83; 추위와이(朱耀偉), 2004: 109-115). 그 증거로서 그녀는 중국이 중심에 있는 동아시아질서구상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 그녀는 대국주의는 일본과 비교해서 중국의 정서에 깊이 각인된 “지리적 광대함의 실체적 인식”(孫歌, 2000: 53)에 기인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동아시아담론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지식인답게 국민국가주의에 대한 백영서의 비판적 견해에 동의를 피력하면서 담론이 중국에게 대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한다(孫歌, 2000: 58-59). 물론 이러한 탈중심주의적인 지적인 각성이 현실적으로 중국지식계와 사회, 정치경제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반영이 될 것인지는 아직은 시간과

20. 괄호 안은 필자의 첨가.

노력이 더 필요하다.

쑨커와 왕후이의 견해를 유추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의 동아시아사 고에서는 아직도 동아시아지역에서 질서를 잡아주는 중심국가의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대국주의와 동아시아 주변국들에 대한 수평적 조망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은 중국의 두 가지 측면의 정서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첫째, 경쟁국인 미국과 일본의 역사에 비해서 중국은 아직도 제국주의 침략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탈냉전 시기에도 미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중국으로 하여금 “반응적 민족주의”(Zheng, 1999)와 방어적인 발전전략으로서의 “강한 국민국가”를 추구하려는 이념을 가지도록 고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에 대해서는 저항을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대국주의 지향을 스스로 인정하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와의 관계성도 수평주의 지향의 다원성보다도 위계적인 통합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둘째, 이러한 기본적 사고에도 불구하고 탈중심주의와 수평주의에 대해 지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동아시아의 평화스러운 장래를 위해서 우호적인 국가로 등장하기 위해 문화, 경제적 교류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연성의 힘”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면 지역 주변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현실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up>21</sup>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종합적으로 “중국 대 서구”의 이원적 세계관은 지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과 동아시아”의 인식보다도 “중국의 동아시아”라는 인식에서 동아시아를 모두 중국이 끌어안고 서구와 대면하려는 포아론적인 사유가 근저에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엿 볼 수 있다. 즉, 그들이 주변부 시각에서 주창하는 동아시아담론의 기본적 논지 — 수평주의적 지역연대, 공동체구상 — 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 며 지적으로도 서구적인 근대를 초탈하고 세계화시대에 지역국가 간의 수평적 조망과 탈국민국가주의가 바람직하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현실적으로 “중국 대 서구”의 이분법적 세계관에서의 동아시아를 포용하여 대

21. 중국의 소프트파워전략에 대한 분석적 연구로는 조영남(2007).

표하려는 수직적인 동아시아인식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의 동아시아사고가 포아론적인 사유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면 딜릭(Arif Dirlik)의 “비판적 지역주의” 관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딜릭의 논지는 지역주의가 세계의 “합리적 동질화”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등장하지만 이 저항이 자본주의적 혹은 서구중심적인 억압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과거에 자체 내에서 행해진 억압들은 무시하려는 경향을 비판한다. 이를 유추하면 중국의 동아시아사고는 서구에 대한 저항을 지향하면서 그 수단으로써 동아시아지역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거 중화주의적 공동체에 대한 향수나 새로운 종류의 헤게모니 지향적인 갈망에 여전히 채색되어 있다는 것이다.<sup>22</sup> 이 같은 시각에서는 중국이 탈서구를 지향하면서 전근대적인 과거의 것에서 그 수단을 모색하려고 한다면 서구의 패권에 저항한다는 의미에서는 성공적일 수도 있으나 결국 서구 근대성에서의 국민국가주의 혹은 대국주의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데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주변부 시각에서의 동아시아담론과 비교했을 때 가장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담론의 논지들이 정치사회적 실천영역으로 확장되면 — 동아시아공동체구축의 과정에서 — 가장 연구와 대화가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썬꺼의 논리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중국의 동아시아사고에서 보이는 포아론적인 특징과 더불어 특히 주변부에서 전개되는 담론과의 차이점까지도 더욱 확연하게 추출해 낼 수 있다.

## 2. 썬꺼의 동아시아담론: 중국의 “독특한 원리” 찾기와 “기능”으로 서의 아시아

썬꺼의 논지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려는 이유는 그녀가 중국대륙에

22. 서구중심의 근대화와 패권지배에 대한 비서구의 저항에 근거한 지역주의담론에 대한 성찰로서의 “비판적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딜릭(1994: 136-147); Dirlik(1994: 105-111).

서는 드물게 동아시아에 대해서 사고하려는 지식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쑨끼의 동아시아담론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처음에 난관에 봉착한다. 자신이 밝혔듯이 그녀는 본래 아시아이론 전문가가 아니며 문학도로서 루쉰을 연구하면서 일본에 체류하게 되는 기회에 루쉰 연구가인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의 아시아주의를 접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아시아문제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전개한 일본지식인인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에 대한 비평을 중국의 아시아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그녀 자신이 일본 아시아주의를 바라보면서 중국의 아시아주의를 유추하면서 그려보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한다.

다케우치의 아시아사고는 중국과 일본의 근대를 비교하면서 출발하고 있으며 쑨끼는 이처럼 일본이라는 거울에 비친 중국을 바라보면서 아시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배양하고 있다. 그녀는 다케우치의 논지에서 중국이 대국임을 새삼 자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반세기 전에 다케우치는 중국식의 근대라는 표현으로 중국이라는 대국이 갖고 있는 역사적 논리를 지적하였지만 이러한 역사적 원동력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다.”(쑨끼, 2007a: 72)라고 하면서 아시아에서 중국의 존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로한다. 이 말은 일본은 근대화시기 이래로 이미 동아시아와 일본과의 상관성에서 자기존재의 함의를 발굴한 것에 비해 중국은 아직도 동아시아와의 관계설정이 모호하다는 현실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그녀는 중국에서 동아시아담론이 부재한 것을 인정하면서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에서 중국의 동아시아담론을 유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쑨끼가 바라 본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는 다음 같이 요약하여 서술 할 수 있다.<sup>23</sup> 다케우치(2004c: 159-161; 竹内好, 1966c: 412-414)는 일본 아시아주의의 탄생에서 시작하여 전쟁의 패배에 이르기까지 근대화라는 주제와 연관시켜 아시아주의의 성격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그는 일본이 메이지 이래로 법률적, 정치적 독립을 넘어서는 실질적 독립 즉 문화적 독립을 이룬 적이

23. 여기서는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에 대한 개략적 소개만 할 것임.

없다고 한탄한다. 의식적이건 아니건 서구 근대주의에 조종되어 맹목적으로 제국주의전쟁에 복무한 것이라고 한다. 같은 비서구지역인 중국의 내부혁명적 근대 만들기과 일본의 외부모방적 근대 만들기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일본을 비판한다(다케우치, 2004a: 17-63; 竹內好, 1966a: 9-50).<sup>24</sup> 일본의 근대는 구조적으로 구래의 구조를 지니면서 그 위에 서양에서 취한 문명을 덧씌운 것으로 규정, 중국의 근대는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에 대응 하면서 자기부정을 통해 자기를 철저히 파괴하고 자기변혁의 힘을 자신 속에서 만들어 냈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본의 근대는 “전향(轉向)”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전향은 저항을 못하는 경우에 일어난다고 하면서 주체성을 결여한 일본은 전향을 선택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본문화의 원리에 의해 메이지시대의 洋夷論자들은 곧장 開國論자가 된 것을 그는 상기시킨다. 그의 논리를 따르면 마치 미국을 공격하면서 전쟁을 수행했던 보수우익세력이 전후에도 自民黨의 근간을 형성하는데 모순적이게도 신속히 “脫亞入米”로 전향을 한 것이다. 그는 일본과 달리 중국의 근대는 “회심(回心)”의 문화에서 이루어졌다고 정의한다. 회심은 나의 내부를 향한 변화, 즉 혁명이며 그것은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는 것이다(竹內好, 1966a: 40-42; 다케우치, 2004a: 53-54). 양국 사이에 이러한 격차가 생긴 것을 서양문명을 흡수하는 태도, 즉 주체성의 유무에 따라 설명을 하고 있다. 그는 일본식 근대화의 근원적인 문제를 주체성이 결여된 노예의식 하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찾았다. 루쉰의 작품에 나오는 노예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노예의식이라고 규정했다(竹內好, 1966a: 34-38; 다케우치, 2004a: 45-49).<sup>25</sup> 서구를 대면 할 때 우월감과 열등감의 공존이라는 주체성이 결여된 노예의식이 동양의 공통적 조류라면 일본은 가장 동양적이지만 저항이 적다는 측면에서는 동양적이지 않다고 평한다(竹內好, 1966a: 23; 다케우치, 2004a: 32). 일본은 “근대への 전환점에서 유럽에 대해 열등감을 가졌고, 따라서 유럽화

24. 역자들은 구판 『現代中國論』(1951)에는 「근대란 무엇인가 - 일본과 중국의 경우」라는 제목으로 실렸고, 뒤에 「중국의 근대와 일본의 근대 - 루쉰을 매개로 하여」라는 제목으로 바뀌었다고 밝히면서 역서에는 이 두 제목을 결합하여 표기했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한글 번역본과 1966년에 나온 원전과 비교하면서 참조했다.

25. 여기에 나오는 작품은 魯迅(1991).

하는 것이 탈각의 길이라고 여겨 열심히 모방하기 시작했다.”(竹內好, 1966a: 37-38; 다케우치, 2004a: 49)고 하면서 일본의 근대화는 우월한 유럽을 모방함으로써 열등한 아시아국가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려 한데서 노예 의식을 드러냈다고 혹평한다. 즉, 이러한 주체성의 부재는 일본적인 것을 방기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포기한 것이라는 의미이다(竹內好, 1966a: 38-39; 다케우치, 2004a: 49-50). 즉, 일본은 주체성부재의 근대화를 수행하면서 결국 근대를 내면화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제국주의침략을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우를 범했다는 논리이다. 결국 메이지이래의 근대화는 지적-문화적 주체성의 기초위에서 성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성찰인 것이다.

이러한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에서 쏠려 있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그녀의 아시아사고를 유추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녀의 견해를 주변부의 조망에서 비평하면서 포아론적 사유의 특성을 추출해 본다.

#### (1) 양자의 공통적 사유와 방법론: “저항”으로서의 아시아주의

양자는 동아시아에 대한 사고의 출발점이 비슷하다. 다케우치(2004a: 21; 竹內好, 1966a: 12-13)는 동아시아의 존재와 근대화를 논할 때 서구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동아시아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루쉰 문학사상의 정수를 저항정신에서 찾고 있다. 특히 루쉰이 즐겨 사용하던 “쟁짜(掙扎)”<sup>26</sup>라는 용어에서 저항정신을 발견하는데 이 용어에 가장 근접한 일본어역은 “저항”이라고 하고 있다. 그가 “저항”으로 함축되는 루쉰의 문학정신을 중국의 근대화정신과 일치시키고 대조적으로 이러한 저항이 결여된 일본의 근대화와 아시아주의를 성찰하고 있는 것은 논리적인 귀결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쏠려(2003b: 59)는 역사적으로 아시아는 자족적인 지역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서구를 자신의 대립상대로 여기는 이데올로기이며 아시아담론은 한편으로는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저항과 관련된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는 동양내부의 패권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26. 다케우치(2003: 7-19, ff12). 중국어인 “掙扎”의 의미는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1993: 586).

있다. 이렇게 양자는 서구에 대한 저항에너지의 결집체로서 아시아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결집이라는 것도 일종의 경향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시아의 특성과 개념을 명백히 정의내리는 작업은 아직은 막연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다케우치가 루쉰의 저항정신에서 일본의 근대화와 동아시아주의에 대해서 많은 계시를 받았듯이 쑨끼(2007b: 69-71, 132-138; 孫歌, 2005: 15-16, 58-62)도 그러한 다케우치로부터 중국의 동아시아주의를 유추하여 사고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7</sup> 즉, 그녀는 다케우치의 아시아사유가 루쉰에 대한 비평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그것은 “저항”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의 동아시아사유는 그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방법론을 차용하고 있다. 즉, 쑨끼는 다케우치의 동아시아주의를 탐구하면서 중국과의 공통점 즉, 서양에 대항한다는 지향에서 출발한다는 면을 보았고 거기서 중국과의 구별도 모색하면서 중국의 동아시아사유를 유추하게 된다. 이는 그녀가 표현한 다케우치의 사유방식을 연상시킨다. 즉, 그녀는 다케우치의 방식인 자신이 비판 또는 부정하려고 하는 대상의 내부로 들어가 그 내부에서 자신의 입장을 구분해내는 방법론을 원용하여 우선 다케우치를 통하여 일본의 아시아주의로 진입한 후에 거기서 중국의 것을 구별해 내면서 자신의 동아시아사유를 유추하고 있는 것이다.

## (2) “아시아의 원리”와 “기능”으로서의 아시아

유동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에서 아시아는 사상적인 실체가 아니라 “방법”이라는 다케우치의 논리를 쑨끼는 유추하여 “기능”으로서의 아시아를 제시한다.<sup>28</sup> 다케우치는 서양의 우수한 문화를 더욱 심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서양을 동양이 싸안아서 역으로 서양을 동양이 변혁시키는 “문화적인 되감기”를 하며 보편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되감기”를 할 때는 독자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주체형성

27. 쑨끼의 다케우치에 대한 비평은 孫歌(2005)와 한국어 번역본인 쑨끼(2007b)를 참조.

28. 孫歌와 丸川哲史의 대담에서의 언급. 원래 출처는 孫歌(2002)이며 백영서(2004: 15)에서 재인용.

의 과정으로서 일종의 “방법”으로서는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파한다(竹內好, 1966c: 420; 다케우치, 2004c: 168-169). 이것이 그가 말하는 아시아는 사상적인 실체가 아닌 “방법”이라는 논리인데 썬꺼는 이러한 다케우치의 태도는 서양의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일본, 중국, 서구라는 세 유형을 통해서 근대화 모델을 사고하고자 한 것이라고 평한다. “아시아의 서구 되감기”는 서구식의 근대를 다양화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이는 서구의 시각으로만 세계를 바라보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사고라는 것이다. 썬꺼(2007a: 66-67)는 이러한 다케우치의 아시아사유는 결국, 근대화과정에서 잃어버린 일본인의 가치관을 되찾고자 하는 구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케우치는 “방법으로서의 아시아”연설에서 이에 대해서 명백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고 중국과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대해서만 대부분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썬꺼가 감명 깊게 느낀 것은 다케우치가 중국을 분석하면서 보여준 아시아의 주체성 찾기에 대한 열정이었던 것 같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이 실질적인 전쟁상태에 있던 시기에도 그가 중국연구를 계속한 것은 일본사회의 표면화된 근대의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상의 되감기”라는 구상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그녀는 평한다(썬꺼, 2007a: 68).

이러한 다케우치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주의”는 썬꺼에 의해서 다음 같은 과정을 거쳐서 “기능으로서의 아시아주의”로 치환되고 있다.

썬꺼(2007a: 69)는 오늘날 일본과 중국의 지식계가 서구의 이론을 추수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영어식의 사고”(서구식의 사고)로 격동하는 역사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를 자연스레 갖출 수 있을까라는 회의를 품고 있다. 그녀는 회의와 더불어 답변도 내놓고 있는데 이 자문자답이 썬꺼의 동아시아사고를 관통하는 핵심적 흐름이라고 보아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즉, 중국이 없다면 동아시아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국은 동아시아를 설명하는 하나의 고리라고 한다. 이는 한국을 말하는 것이 한국 중심주의가 아니듯이 결코 중국 중심주의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동아시아에 가져온 역사적 구조의 전환에 잠재한 중국의 “독특한 원리”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표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원리는 중국을 설명하기 위한 미국과 서구의 이론적 시도를 무력화시킨다고



한다. 이렇게 쑨꺼(2003a: 54)가 추출한 “중국의 독특한 원리”는 초기에 다케우치의 중국론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내부의 격동을 해결할 수 있는 대국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서 이미 의식되기 시작하였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계속하여 쑨꺼의 “독특한 원리”에 대한 사고는 다음 같이 중국의 “연속적인 방향성”과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게 된다.

처음에 쑨꺼(2003b: 62)는 아시아문제의 난점은 아시아는 확정된 의미를 내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내용을 표출했던 다양한 아시아담론 사이에는 필연적인 내적 연관성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 역사적 맥락을 추적하면 “연속적인 방향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sup>29</sup> 이는 중국연구자로서 다케우치(2004a, 34; 2004b: 45-49; 竹內好, 1966a: 24-25, 36-38)가 중국의 역동성과 내재적 근대화를 이루어낸 근거를 루쉰의 저항정신에서 찾고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다케우치의 중국관은 쑨꺼로 하여금 소국인 일본과는 달리 중국이 격동을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국이라는 자각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격동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다케우치가 흠모했던 루쉰의 저항정신이며 이것을 그녀는 유추하여 중국의 “연속적인 방향성”이자 곧 “독특한 원리”로 치환하였다.

결국 쑨꺼는 다케우치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논의에서 중국의 “연속적인 방향성”이자 “독특한 원리”를 내재화한 아시아주의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기능으로서의 아시아”논리를 주도해낸다. 그녀가 추출한 “기능으로서의 아시아”는 중국의 “독특한 원리”라는 연속적인 역사적 지향을 일정하게 작동시키는 말 그대로 “기능”의 역할을 내포한다. 즉, 중국의 독특한 원리를 이루기 위해 “동아시아의 기능화”를 상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는 실체로서 확실히 존재하고 있으며 탈냉전구조 속에서 동아시아인들은 긴급히 연대를 하지 않으면 미국을 극복할 수 없다는 엄중한 현실”<sup>30</sup>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녀의 동아시아인식에는 동아시아를 일

29. 그녀는 실례로서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로 대표되는 “탈아입구론”과 오까꾸라 덴신(岡倉天心)의 “아시아일체론”이라는 양대 조류가 일본사회에 오늘날 까지도 “興亞”와 “脫亞”의 이중변주의 방향성을 형성한다고 암시한다.

30. 백영서(2004: 16)에서 재인용.

종의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이자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때에 쏜꺼는 의식적이든 아니든 자신도 “중국 대 서구”라는 이원적 세계관과 “중국 중심주의적 사고”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들어내고 있다. 결국 쏜꺼의 사유에서 동아시아는 중국의 역사적 지향인 “독특한 원리”를 이루기 위한 “기능”으로 자리매김을 당한 것이다.

계속하여 그녀의 “중국의 독특한 원리”는 다케우치의 “아시아의 원리”에서 유추해 낸 개념이라는 것이다. 처음에 다케우치가 “아시아의 원리”를 언급한 것은 그것을 일본의 아시아주의에 일치시키고 내면화 시켜보려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일본의 실패한 아시아주의에서는 “아시아의 원리”를 확보할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에 탈서구적 주체적인 근대화를 이룬 중국을 부러워한 것이다.<sup>31</sup> 중국은 문화적 정체성이 뚜렷하여 “탈아입구”의 이데올로기가 불가능하며 서구적 근대를 모방한 일본식의 아시아침략행위로부터도 자유스럽다. 중국은 따라서 아시아와 서구로부터 아무런 빛을 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아시아의 원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다케우치에게는 이러한 중국의 주체적인 근대화가 부러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일본의 “아시아침략”과 “순수한 아시아연대주의”를 교묘하게 분리시켜야 “아시아의 원리”를 주장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동기에서 그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아시아연대주의와 그것의 최종적인 귀착점인 아시아 침략이데올로기와의 분리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에 대한 전쟁을 찬양하면서 동아시아침략의 측면과 서구의 식민주의에 대한 동아시아해방의 양 측면을 동시에 분리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서 이러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sup>32</sup> 다시 모순적이게도 중일전쟁을 강자의 약자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하면서 중국이 정신적으로는 일본을 이겼다고 한탄하고 있다(竹內好, 1966c: 416-417; 다케우치, 2004c: 163-165).

31. 그는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32. 다케우치의 모순과 분리의 시도에 대해서는 함동주의 논문에서 계시를 받았다. 함동주(1995). 다케우치의 모순적인 조망이 잘 들어난 언급은 1941년 12월 「대동아전쟁과 우리의 결의」라는 글에서이다. 그는 여기서 미국과의 전쟁은 일본이 그동안 중국 같은 약자를 괴롭혀 온 행태를 버리고 미국 같은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鶴見俊輔(1983: 232).

그러나 이러한 그의 열정적인 “분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시아의 원리”를 장악하지 못하였다(竹內好, 1966b: 172-173; 다케우치(2004b: 101-102). 다케우치 이후에도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침략(脫亞論)과 연대(興亞論)의 이중변주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보수우익적 분위기는 아시아침략과 순수한 아시아연대주의를 분리보다는 “일치”시키고 그에 대해 자부심마저 가지려고 하고 있다. 당연히 “脫亞入米”를 특징으로 하는 沒아시아적인 문화를 자부하는 일본은 다케우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원리”를 주장할 자격을 잃어버렸다. 따라서 썬꺼는 다케우치가 확보하지 못한 “아시아의 원리”를 중국으로 가져오면서 “중국의 독특한 원리”로 치환시킨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기의 다케우치의 일본 아시아주의 비평에서 중국의 것을 유추해내는 과정을 거친 그녀의 동아시아사유의 특징은 동아시아는 기능으로서 중국의 독특한 원리의 실현에 봉사한다는 것이다. 기능은 원리의 실현에 복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썬꺼의 “중국의 독특한 원리”에 봉사하는 “기능으로서의 동아시아”담론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 동아시아주의의 구심적 지향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독특한 원리를 동아시아의 원리로 치환시키려는 시도는 중국이 중심에 서서 동아시아를 동심원 내부에 담아내려 하려는 포아론적 지향이 내면화된 동아시아사고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3) 다케우치 요시미와 썬꺼의 직관주의

썬꺼(2007a: 67-68)에 의하면 다케우치의 비판적 사고는 일본사회의 아시아경시태도 근저에 숨어있는 “인식론적 직관주의”를 겨냥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다케우치의 비판의 골자는 일본의 아시아주의가 근대화 과정에서 직관주의적 차원으로 변질되면서 “심정우선의 태도”가 생성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다케우치(2004a: 40-41; 竹內好, 1966a: 29-30)는 이러한 직관주의를 근대화가 상대적으로 늦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대면하는 일본의 “우등생문화”로 풍자하면서 조소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부의 시각에서 보면 다케우치와 썬꺼의 아시아주의도 다음 같은 면을 과소평가 하고 있는 면에서 직관주

의적 경향을 탈피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앞서 다케우치는 일본의 맹목적인 서구모방을 한탄하면서 그 모방-순수한 연대주의의 실현이라는 의미에서의 서구근대성에서의 국가주의의 발현인 침략을 또한 찬양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에 대한 침략을 규탄하면서 동아시아의 서구식민지를 해방시킨다는 의미에서 대동아전쟁을 찬양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그의 아시아론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직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그의 저작에서 일본의 아시아연대를 긍정하면서도 부정하기도 하는 대목이 비체계적이면서 산발적으로 언급되는 연유이다. 다케우치는 이러한 비논리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서구와 일본 같은 중심부의 국민국가주의는 긍정하나 주변부의 국민국가주의는 부정하는 강자중심의 문명일원론적인 사고에 내면화 되어있다. 따라서 그는 철저히 일본중심의 동아시아주의를 상상하면서 서구에의 모방과 저항의 양대 사고에 대해 자부와 비판을 동시에 표명하는 일관적이고 논리적이기 보다는 직관주의적 입장을 견지한다.

쑤꺼는 이러한 그의 직관이 초래하는 모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지 않고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쑤꺼는 아마도 이러한 다케우치의 이율배반이 성찰이 철저하지 못한 것이라기보다도 지적인 고민의 결과라고 여긴 것 같다. 즉 외형적으로는 근대화의 성공을 이루었으나 내면적 근대화를 상징하는 아시아주의가 정작 실패한 것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다케우치는 근대화와 아시아연대주의에 대한 자부심과 좌절감 사이에서 지식인으로서의 고심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케우치의 노력이 이후에 일본사회와 지식계에서 충분히 결실이 맺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쑤꺼(2003c: 182)의 평가에서 이러한 고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쑤꺼의 다케우치의 직관에 대한 관대함은 상기한 대로 자신의 “기능으로서의 아시아주의”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즉, 그녀는 아시아의 원리를 중국의 원리로, 동아시아를 중국의 원리의 실현을 위한 기능으로 논리적이 아닌 직관으로 치환해 버린 것이다. 이렇게 양자의 아시아주의는 공통적으로 논리적이기 보다는 직관적 정서의 측면을 강하게 들어내고 있다.

#### (4) 주변부인식의 부재에 대한 비평

쑤꺼(2003b: 61)는 동아시아담론이 동아시아 각국의 사상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고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동아시아문제는 문화대국(중국)의 주변부에 해당하는 곳에 진정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일본사상사는 동아시아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만 중국사상사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 쑤꺼는 여기서 일본을 주변으로 묘사하면서 중심으로 자처해 온 중국에서 동아시아문제는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문젯거리로 부각된 적이 거의 없었다고 슬회한다. 따라서 중국은 동아시아를 사고할 필요가 없었던 대국이었기 때문에 지식계도 동아시아에 대한 존재인식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며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도 일본의 아시아주의를 통하고서야 중국의 아시아주의를 그려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가 다케우치의 동아시아주의를 주변부의 동아시아주의로 인식하면서 중심부로서의 중국과는 다른 문제의식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아시아 주변국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시각으로 동아시아담론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것이다. 쑤꺼(孫歌, 2000: 53)는 이러한 중국의 여타 주변부와 대조적인 측면, 즉 대국주의적 사고는 일본과 비교해서 중국의 정서에 깊이 각인된 “지리적 광대함의 실제적 인식”에 기인한다고 정의한다. 쑤꺼(孫歌, 2000: 57-58)는 중국인이 동아시아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잠재의식 속에서 중국을 아시아의 중심, 최소한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중국이 아시아를 논하지 않는 것은 탈아시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라는 모호한 말이 가리키는 바에 내재화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쑤꺼(2003a: 54)는 중국의 지식계가 아시아문제를 중국 중심주의에 귀결시킨다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광대한 국토와 주변부의식이 결합된 “國族관념”을 가지면서 수천 년 동안 “격동의 역사”에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이것은 주변부의 시각에서 평하면 쑤꺼가 사고하는 아시아주의가 국토의 대소감각, 지정학적 인식의 한계에 제한 받고 있다는 것을 예증하는 것이다. 일본의 동아시아담론을 주변의 문제의식이라고 하면서 동아시아의 문제의식

은 주변에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동아시아사고는 일본을 넘어서 다른 주변부 즉, 한국과 동남아의 존재와 연관시키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을 통해서 중국이 소국의 긴장을 감지한다고 했으나 동아시아에서 소국의 긴장은 일본에 비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전형적으로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 주변국에서도 중국과 같이 격동의 역사가 있고 사상과 아시아의 원리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충분히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단지 시혜적 의미에서 언급하는 주변부에 대한 인식은 쑨개의 동아시아사유에서 논리적으로 내면화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녀의 동아시아에 대한 문제의식의 한계는 일본에서 유추하는 동아시아관의 맹점, 즉 중국과 일본이라는 중심국가의 프리즘에 의존하여 동아시아를 관망하려는 중심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21세기 동아시아담론이 지향하는 주변에서 중심으로의 탈중심주의와 수평주의적 시각의 배양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지역내부의 수평주의가 결여된 연대 혹은 공동체는 결국 중심국에 의해 휘둘리면서 미국에 대한 저항의 동아시아집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이것이 쑨개에 의한 “기능으로서의 동아시아”사고이다. 즉, 쑨개의 동아시아담론은 다케우치를 참조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다케우치의 아시아담론은 서구에의 저항, 중국의 저항정신을 참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양자는 또한 동일하게 저항은 약자의 것이며 동아시아 주변부의 중심부 — 중국과 일본 — 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는 망각하거나 무시하는 논리를 보이고 있다. 중심부 — 중국과 일본 — 의 서구에 대한 저항만을 주로 사고하면서 동아시아주변부의 이중의 저항 — 지역 중심과 서구에 대한 복합적이고 동시적인 저항 — 을 사고하고 있지 않다. 그들의 동아시아주의는 따라서 반쪽짜리 동아시아이론이다.

이러한 “중심주의적 동아시아주의”는 동아시아 주변부에서도 존재하는 사상적 자원들을 “동아시아의 원리”로 내재화 하려는 노력을 방기한 채, 미국/서구와의 관계성에만 집착하는 중심부의 “독점적 동아시아사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중심주의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있는 주변부의 사상적 자원으로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즉, ASEAN에서의 회원국 간의 수평주의적 사고, 한국에서 생성된 비판적 지식인-시민의 반독재민주화

운동에서 생성된 진보적인 탈미자주적 사고, 베트남의 탈미국·탈식민주의 자주독립, 말레이시아의 자주적 금융위기의 극복, 동아시아에서의 인권과 평화주의에 근거한 반일사조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주변부의 자원들을 무시하는 중심주의적 동아시아담론의 근거에는 서구와 동등해지려고 하는 지향에서 동아시아주의를 주조하고 있으며 이렇게 주변부 동아시아를 결눈질하는 방법으로서 동아시아의 겉모습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중국과 일본의 중심주의는 서구에 대한 저항에서 동아시아주의가 생성된 주요한 동기였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서의 중심에 대한 주변의 저항을 희석시키거나 무시함으로써 주변부주의의 각성과 근대화의 발전적 전개를 경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논리에 의하면 서구에 대한 저항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중심부인 중국과 일본에서 발현된 동아시아주의만 존중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본의 동아시아침략이 서구의 식민주의에 대항하는 동아시아해방전쟁으로 합리화 되었고 중국에서는 반서구적 정서에서 출발한 위계적인 아시아 대표의식과 중아일체적 사고가 지속되는 근원이기도 하다.

중심주의적 담론은 또한 국민국가주의를 초탈하여 동아시아를 사고하기가 힘들다. 중심부의 논리는 국가와 민족만이 근대화할 수 있고 지식인·시민의 근대화에 대한 각성과 그들에 의한 운동을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21세기 동아시아담론이 주장하는 지역에서의 지식인·시민연대의 역할을 주변화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원리”는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 민족과 더불어 지식인·시민까지도 포섭할 수 있어야 이론적 보편화가 가능 할 것이다. 동아시아주의가 보편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중심주의적 동아시아사고에서 미국과 서구에 대한 저항을 주로 동아시아주의 형성의 근거로 논하면서 결국 이들에 대한 저항주체로서 강한 국민국가만이 근대화와 저항의 주체적인 단위이고 내부의 다양한 견해를 가진 지식인·시민 등은 근대화와 저항의 주체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지향은 중심부 국민국가가 근대화이념을 독점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주변부의 지식인, 민중들은 철저히 근대화의 주체적 단위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심화시켰다. 결과는 서구제국주의와 더불어 지역중심부인 일본과 중국의 대국주의에 이중의 고통과 저항의 역사를 겪어야 했다. 따라서 보편적 “동아시아의 원리”는 생성

되기도 전에 지역의 중심주의에 의해서 독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는 상술했던 류스페이이 논리 즉, 약소국과 대국의 민중 모두에게 근 대화와 저항의 주체성을 부여했던 진보적인 아시아사고가 상기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쑨꺼가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에서 중국이 대국이라는 사실을 자각했다고 한다면 주변부의 지식인들이 쑨꺼와 다케우치의 중심주의적 아시아사유를 보면서 어떻게 동아시아가 서구에 의해서 주변화 되었고, 동아시아 내부는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중심-주변으로 분화되었고, 그들에 의해 동아시아주의가 독점되었으며, 그들에 의해서 동아시아주의는 “중심지향화,” “서구를 대면하기 위한 기능화”가 진행되었는지를 자각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

#### IV. 지적인 상상과 현실주의의 기로에 선 중국의 동아시아 담론

중국의 중심주의적 동아시아담론에서 파생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케우치의 고민은 일본의 동아연대주의가 침략으로 변질되었고 그래서 일본이 “아시아의 원리”를 주장할 권리를 잃어버렸다는 데 있었다. 쑨꺼의 고민은 중국의 거대한 존재감이 지적인 상상과 현실 사이, 즉 수평적 동아시아주의와 대국주의 사이에서 방황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국 지식인들과의 교류에서 그녀가 주변이라고 여겼던 일본의 다케우치에게서는 정작 발견할 수 없었던 주변부의 시각을 접하면서 더욱 깊어졌다.

그녀가 증점적으로 논의한 것은 다케우치의 이론을 평하면서 중국의 아시아주의를 유추하는 것이었다. 거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주변의 시각이 담겨있는 견해를 산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중국대륙보다는 오히려 타이완에서 식민지의 경험으로 인해서 아시아에 대한 논의가 수준에 도달하였고 대륙은 한



수 배워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기도 하다(쑤꺼, 2003a: 32). 그녀는 중국의 대국주의의 근원이 되고 있는 국민국가주의가 세계화의 사유방식이 와해시키고는 있으나 아직은 국토의 대소와 지리적 경계인식을 무력화시키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동아시아사유가 중국인에게 일깨워 주는 것은 대국주의를 탈피하는 데 기회를 제공해 줄지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한다(孫歌, 2000: 53). 이 같은 언급에서는 중심부 지식인의 주변부에 대한 인식 부재에 대한 지적인 성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나, 아직은 그녀의 사고에서 성찰은 있지만 주변이식이 내재화되어 있지는 않다.

상기한 바와 같이 쑤꺼는 다케우치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아시아의 원리를 중국의 원리로 치환하였는데 이것은 동아시아 주변부에 위화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렇게 양자의 동아시아의 원리 찾기가 동아시아의 공감대를 얻어내기가 힘든 가장 중대한 이유는 진정한 “동아시아의 원리”는 지역의 중심이 아닌 “중심과 주변과의 열려진 소통”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측면은 세계의 주변부라는 것이다. 세계의 시각에서는 중국과 일본도 주변이다. 중국과 일본의 지역중심주의는 항상 습관적으로 서구와의 상관성 — 저항과 모방 — 의 시각에서 동아시아주의를 전개하고 규정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탈아와 홍아의 이중변주” 중에도 아시아의 지도적 위치를 열망하는 모순적 심리에 휩싸여 있다. 중국의 동아시아사유에서는 중국이 중심이 되어 동아시아를 포용하면서 서구를 대면하려는 “포아론”적 사고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사고에 의하면 중국은 동아시아의 존재인식은 미약하지만 일본의 탈아론이 표방한 것처럼 동아시아를 탈피하여 사유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동아시아”인식에 아시아대표의식과 중아일체 의식을 내면화하면서 중국과 아시아의 분리 상태를 사고한 적이 없다. 그렇다고 동아시아 이웃들을 중국과 동등한 파트너 — “중국과 동아시아” 인식 — 로 인정하기도 힘들다. 이것이 서구를 대면하기 위해 동아시아주변부를 자국중심의 동심원에 포용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포아론”적 사고가 생성된 근거이다. 이러한 중국의 사고는 주변부적 사고에서 보면 동아시아의 수평주의적인 연대론이 아니라 동아시아를 포섭하여 중국 중심의 위계적인 지역체

제를 지향하는 사고인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동아시아에서 정치적 패권을 유지하거나 미국, 일본, 서구에 대항하는 논리로는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의 타자로서의 동아시아가 주체적인 존재를 추구하는 지적인 프로젝트, 미국의 전지구적 자본주의발전방식에 대한 동아시아적 대안 찾기로서 수평주의적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데는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것이 주변과의 소통이 결여된 중국의 중심주의적 동아시아담론의 한계이다.

이러한 측면에 대하여 지적으로는 이해하면서도 중국의 대국주의 지향성이라는 정서와 현실을 바라보면서 쑨커(2000: 58)는 말한다:

“동아시아 이웃나라들에 대한 중국인의 무지 뒤에 감추어져있는 것은 바로 세계질서에 대한 단면적이고 표면적인 이해가 아닐까? 비국가 본위의 동아시아 시각의 수립이 국가기능 가운데 강권에 대항하는 부분에 대한 무지와 국가기능에 대한 간단한 부정을 전제로 해서 안 되겠지만, 또한 진정으로 평등한 동아시아시각의 수립을 위해서는 국가본위의 좁은 사유방식과 그것이 의지하는 정치적 기초와 사회적 토양을 해체해야만 한다는 것, 이는 이율배반적인 과제이다. ... 동아시아에 대해, 이웃나라에 대해, 우리들 자신의 현실적 위치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을 우리 중국인 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언급은 동아시아담론은 결국 지적인 상상인데 그 이상적인 측면을 모두 실천적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것은 주변국보다 중심국에서 더 많은 내부에서의 갈등을 감내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인 고민의 표현이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담론은 세계적 시각에서 중심부 서구 — 주변부 동아시아, 지역의 시각에서 중심부(중국, 일본) — 주변부(한국, ASEAN) 간의 분화를 허물려는 21세기의 지적인 상상이자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아시아에 존재하는 서구적 근대의 부정적 유산인 국민국가주의와 대국주의의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동아시아는 주변부에 대한 수평주의적 시각을 배양할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결국 서구적 발전방식을 극복하려는 동기를 표방하는 동아시아담론은 EU의 탈국민국가주의, 문화적 수평주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자기 모순적 상황도 받아들여야 한다. 동아시아담론은 중심부와 주변부의 소통을 증대하여 유무형의 공통적인 자산을 찾아내어 그것을 “동아시아

의 원리”로 내재화하는 구상인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성빈. 2007. 「한국과 중국의 ‘동아시아담론’: 상호연관성과 쟁점의 비교 및 평가」. 『국제지역연구』 16권 3호. pp. 31-67.
- 다케우치 요시미. 2003. 『루쉰』. 문학과 지성사.
- 다케우치 요시미. 2004(a). 「근대란 무엇인가 - 중국의 근대와 일본의 근대」. 『일본과 아시아』. 서광덕·백지운 역. 소명출판. pp. 17-63.
- 다케우치 요시미. 2004(b). 「근대의 초극」. 『일본과 아시아』. pp. 64-139.
- 다케우치 요시미. 2004(c).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일본과 아시아』. pp. 140-169.
- 딜릭 아리프. 1994.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눈뜨기』. 창작과 비평사.
- 민두기. 2002(a). 『시간과의 경쟁』. 연세대학교 출판부.
- 민두기. 2002(b). 「1920年代の韓國人の孫文觀」, 日本孫文研究會編, 『孫文とアジア』. 「韓國인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의 동양: 20세기 전반」. 『동아시아의 귀환』. 백영서. 창작과 비평사. pp. 146-165.
- 리따자오. 1997. 「신아세아주의」. 『동아시아인의 동양인식: 19-20세기』. 최원식 외. 문학과 지성사. pp. 160-165.
- 류스페이(劉師培). 1997. 「아시아 현정세와 연대론」. 『동아시아인의 동양인식: 19-20세기』. pp. 135-159.
- 백영서. 2000. 「中國에 ‘아시아’가 있는가?: 韓國인의 시각」. 『동아시아의 귀환』. 백영서. 창작과 비평사. pp. 48-66.
- 백영서. 2004. 「주변에서 동아시아를 본다는 것」.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정문길 외. 문학과 지성사. pp. 13-36.
- 백승욱. 2002. 「신자유주의와 중국지식인의 길 찾기」. 『역사비평』 여름호. pp. 278-302.
- 쑤쨈. 2003(a). 「아시아라는 사유공간」. 『동아시아의 비판적 지성: 아시아라는 사유공간』. 창비. pp. 31-58.
- 쑤쨈. 2003(b). 「아시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아시아의 비판적 지성: 아시아라는 사유공간』. pp. 59-106.
- 쑤쨈. 2003(c). 「이상가의 황혼」. 『동아시아의 비판적 지성: 아시아라는 사유공간』. pp. 160-171.
- 쑤쨈. 2007(a). 「포스트 동아시아서술의 가능성」. 『동아시아경제문화 네트워크』.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태학사. pp. 63-78.
- 쑤쨈. 2007(b). 『다케우치 요시미라는 물음』. 그린비.
- 쑤원. 1997. 「대아시아주의」. 『동아시아인의 동양인식: 19-20 세기』. pp. 166-178.
- 이욱연. 1997. 「중국지식인의 인식변화: 80년대와 90년대」. 『역사비평』 봄호. pp. 348-361.

- 이옥연. 1999. 「세기말 중국지식계의 새로운 동향 - 신좌파를 중심으로」. 『실천문학』 겨울호. pp. 199-223.
- 이희옥. 2000(a). 「세계화속의 중국, 자기변혁의 추구」. 『당대비평』 10. pp. 229-256.
- 이희옥. 2000(b). 「세계화속의 중국, 자기변혁의 추구」. 『당대비평』 11. pp. 262-283.
- 위잉스. 2007. 『동양적 가치의 재발견』. 동아시아.
- 왕징웨이. 1997. 「중일전쟁과 아시아주의」. 『동아시아인의 동양인식: 19-20세기』. pp. 79-189.
- 왕후이와 이옥연과의 대담. 2000. 「신자유주의와 중국지식인의 대응: 동아시아연대를 위하여」. 『창작과 비평』 겨울호. pp. 337-338.
- 왕후이. 2003(a). 「대담」. 『동아시아의 비판적 지성: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창작과 비평. pp. 229-251.
- 왕후이. 2003(b). 「아시아상상의 계보: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하기 위하여」. 『동아시아의 비판적 지성: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pp. 171-225.
- 왕후이. 2006. 「우리의 공동사명을 위하여」. 『창작과 비평』 봄호. pp. 1-4.
- 조동일. 2007. 「동아시아철학사를 위하여」. 『동아시아경제문화 네트워크』. pp. 17-62.
- 조영남. 2007. 「중국의 소프트파워와 외교적합의」.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손열 외. 지식마당. pp. 99-146.
- 함동주. 1995. 「전후 일본 지식인의 아시아주의론: 다케우치 요시미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정문길 외. 문학과 지성사. pp. 194-227.
- 최원식 외. 1997. 『동아시아인의 '동양'인식: 19-20세기』. 문학과 지성사.
- 추위와이(朱耀偉). 2004. 「누구의 '中國性'인가?: 90년대 중국·타이완·홍콩의 後植民 연구」.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pp. 86-115.
- 李大釗. 1984(a). 「大亞細亞主義」. 『李大釗全集』 上. 北京: 人民出版社. pp. 449-451.
- 李大釗. 1984(b). 「大亞細亞主義與新亞細亞主義」. 『李大釗全集』 上. pp. 609-611.
- 李大釗. 1984(c). 「再論新亞細亞主義」. 『李大釗全集』 下. pp. 108-112.
- 李世洵 主編. 2000. 『知識分子立場-自由主義之爭與中國思想界的分化』. 長春: 時代文藝出版社.
- 吳楓 外. 1991. 『中華現代思想寶庫』.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 李歐梵 外. 1998. 「單元與多元的現代性 - 汪暉(當代中國大陸的思想狀況與現代性問題) - 文討論紀要」. 『天涯』 第四期. pp. 52-57.
- 魯迅. 1991. 「聰明人和傻子和奴才」. 『魯迅選集』 第二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pp. 216-218.
- 白永瑞. 1999. 「世紀之交再思東亞」. 『讀書』 8. pp. 3-8.
- 孫歌. 2000. 「亞洲論述與我們的兩難之境」. 『讀書』 2. pp. 52-59.
- 孫歌, 丸川哲史. 2002. 「東アジア越境する知」. 『週刊讀書人』 8월 30일.
- 孫歌. 2003. 「亞洲意味着什么」. 『求錯集』. 北京: 三聯書店. pp. 27-40.
- 孫歌. 2005. 『竹內好的悖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汪暉. 2000. 「當代中國的思想狀況與現代性問題」. 李世洵 主編. 『知識分子立場 - 自由主義之爭與中國思想界的分化』. 長春: 時代文藝出版社. pp. 83-123.

- 汪暉. 2008. 「亞洲想像의 譜系」. 『現代中國思想的興起』 下卷 第二部. 北京: 三聯書店. pp. 1531-1608.
- 余英時. 1984. 『從價值系統看中國文化的現代意義』. 臺北: 時報文化出版公司.
- 汪丁丁. 1999. 「啓蒙死了, 啓蒙萬世! — 評汪暉關於‘中國問題’的說」. 『戰略與管理』 第一期. pp. 68-83.
- 梁漱溟. 1989. 「東西文化及其哲學」. 『梁漱溟全集』 第1卷. 齊南: 山東人民出版社. pp. 319-547.
- 任厚奎 外 主編. 1991. 『東方哲學概論』. 成都: 四川大學出版社.
- 樓于烈 主編. 1997. 『東方哲學概論』. 北京大學出版社.
- 任劍濤. 1999. 「‘解讀’新左派」. 『天涯』 第一期. pp. 35-46.
- 陶東風. 1999. 「從呼喚現代化到反思現代性」. 『二十一世紀』 6月號(總第五十三期). pp. 15-22.
- 崔之元. 1994. 「制度創新與第二次思想解放」. 『二十一世紀』 8月號(總第二十四期). pp. 5-16.
- 崔之元. 1997. 「經題民主的兩層含意」. 『讀書』 4月號. pp. 79-82.
- 戴錦華. 1999. 『猶在鏡中-戴錦華放談錄』 知識出版社.
- 安格. 羅伯特·M 外. 1994. 「以俄爲鑒看中國」. 『二十一世紀』 8月號(總第二十四期). pp. 54-59.
- 何清連. 1998. 『現代化的陷窰』. 今日中國出版社.
-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1993. 『漢語大詞典』 第6卷.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 現代中國哲學教研究室編, 1988, 『中國現代哲學史教學資料選集』, 北京大學出版社.
- 張法 外. 1994. 「從現代性到中華性」. 『文藝爭鳴』 第二期. pp. 10-20.
- 蔣俊 外. 1990.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竹內好. 1966(a). 「中國の近代と日本の近代」. 『日本とアジア』. 東京: 筑摩書房. pp. 9-137.
- 竹內好. 1966(b). 「近代の超克」. 『日本とアジア』. pp. 141-317.
- 竹內好. 1966(c). 「方法としてのアジア」. 『日本とアジア』. pp. 396-420.
- 鶴見俊輔. 1983. 「戰中思想再考-竹內好を手がかりとして」. 『世界』 448(3月). pp. 225-239.
- Baik, Young-seo. 2002. “Conceptualizing ‘Asia’ in modern Chinese mind: a Korean perspective.” *Inter-Asia Cultural Studies* 3(2). pp. 277-286.
- Chen. Kuan-Hsing. 2002. “Why is ‘great reconciliation’ impossible? De-Cold War/ decolonization or modernity and its tears (Part II).” *Inter-Asia Cultural Studies* 3(2). pp. 235-251.
- Dirlik. Arif. 1994. *After the Revolution: Waking to Global Capitalism*. Wesleyan University Press.
- Dirlik. Arif. 1997. *The Postcolonial Aura: The World Criticism in the Age of Global Capitalism*. Westview Press.
- Koh. Sung-Bin. 2008. “China’s View of Korea: a critique in the context of the East Asian discourse.” *Inter-Asia Cultural Studies* 9(1). pp. 151-166.

- Lenin, Vladimir I. 1975. "The Second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July 19-August 7, 1920) - Report on the Commission on the National and the Colonial-Question (July 26, 1920)." *Selected Works*. Moscow: Progress Publishers. pp. 596-600.
- Negri, Antonio and Hardt, Michael. 2000. *Empir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Sun, Yat Sen. 1941. *China and Japan: natural friends-unnatural enemies; a guide for China's Foreign Policy*. Shanghai: United Press.
- Tanaka, Stephen. 1993. *Japan's Orient: Rendering Past into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Zheng, Yongnian. 1999. *Discovering Chinese Nationalism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ttp://en.wikipedia.org/wiki/Sun\\_Yat\\_Sen's\\_speech\\_on\\_Pan-Asianism](http://en.wikipedia.org/wiki/Sun_Yat_Sen's_speech_on_Pan-Asianism)(검색일: 2006년 1월 10일).
- <http://www.inter-asia.net>(검색일: 2007년 5월 26일).

## The East Asian Discourse in China: Development of an Embracing Asia Perspective

Koh, Sung Bin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s and Diplomacy, College of Law and Politics,  
Jeju National University.

From the peripheral point of view, it can be argued that the East Asian Discourse in China has yet to be matured theoretically and still remains more sentimental than analytical. This study defines the major characteristic of China's perception of East Asia as "an Embracing Asia Perspective," which has been embedded in Chinese mind-set and intellectual orientation ever since the early twentieth century. Besides this, China internalizes both the "representing Asia perspective" and the "China and Asia as one-body perspective," all of which, as this paper insists, fall under the category of the Embracing Asia Perspective. Therefore, China rarely views peripheral states in East Asia on a horizontal perception, and instead sees itself in a hierarchical interrelationship with them. This means that China perceives East Asia, as a device or a means, not as an autonomous entity or a purpose, in order to protest

against the US, Japan and the West.

In addition, China's hierarchical view of its regional neighbors is mainly attributable to a dichotomous world-view of "China vs. the West" structure that considers China a unique counterpart matched by the West and furthermore, capable of resisting it. In this world-view, China's presence is thought to be equated with the whole of East Asia as such and peripheral states merely fall into a category of cogs or sub-system under China as a whole system. By contrast, China always draws attention to both the US and the West as a good exemplary or a bad enemy, disregarding peripheral neighbors in East Asia.

Following the pan-Asianism in the 1920s, further development of China's East Asian discourse entered into a dormant phase because of the civil war and World War II. During the Cold War period, ideological standoff led to a frozen state of discussion of unresolved history questions in East Asia. It is therefore forthcoming of the post-Cold War era that a reasonable and critical debate on a variety of East Asian issues would follow. In fact, recently, critical intellectuals have come to take part in the East Asian discourse enthusiastically than ever before.

Key words: East Asian Discourse, Embracing Asia Perspective, Horizontal Perception, Hierarchical Perception, Dichotomous World-view of China vs. the West Structure, East Asian Principle

